

사진기자의 단상

갯벌 지킴이의 미소



얼굴 가득 '진흙꽃'이 핀 어촌 촌로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갈바람이 땀을 ~ 옷 속을 파고들던 너른 강진만 갯벌에서 만난 촌로는 참꼬막을 캐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촌로는 제철 만난 쫄깃쫄깃한 참꼬막을 캐기 위해 한걸음 내딛기도 힘든 갯벌을 매일 같이 20리 넘게 오간다고 합니다. 수 십 년 동안 겨울 바람 속에서 갯벌을 누렸지만, 추위가 익숙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땀을 흘리며 내뿜으면서 차가운 갯벌을 오가는 수고 끝에 손에 쥐는 돈은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갯벌은 아들, 딸을 키운 소중한 들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유머

▲돈 내놔
어느 날 밤 늦게 마스크를 한 강도가 잘 차려입은 한 남자의 앞을 가로 막고 외쳤다.
“돈 내놔”
화가 난 그 부자가 대답했다.
“내게 이러면 안 돼. 난 국회의원이야!”
“그렇다면 내 돈을 돌려줘.”

▲그러는 줄만 알았다
초딩 : 담배는 아빠만 피우는 것인 줄 알았다.
중딩 : 좀 노는 놈들도 피운다는 것을 알았다.
고딩 : 어른들이 보지만 않는다면 피우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대딩 : 아빠가 나한테 담배 빌리러 온다.

▲남 이랬다
초딩 : 어른이 되고 싶었다.
중딩 : 고등학생이 되고 싶었다.
고딩 : 대학생이 돼서 마음껏 놀아보고 싶었다.
대딩 :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기방 때문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아파 엄마가 의사를 불렀다. 왕진 온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방에 들어갔고 밖에서 엄마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잠시 후 의사는 엄마에게 깔을 달라고 하였다. 또 잠시 후 이번에는 펜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의사는 드라이버를 가져다 달라는 것이 아닌가!
엄마는 더욱 안절부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또 다시 의사는 아이 엄마를 불러서 전기톱이 있냐고 물었다.
아이 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말하였다.
“선생님, 사실대로 말해 주세요!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이 병이 심각한가요?”
의사가 말했다.
“저... 사실은 왕진 기방이 안 열려서요.”

▲이상한 서비스
취약을 팔고 있던 남자가 지나가던 아줌마한테 말했다.
“취가 맛있게 먹는 약입니다. 하나 사세요~”
그러자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집엔 취가 없답니다~”
그러자 남자가 다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취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누구신지?
한 중년여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졌다. 그녀는 수술을 받는 동안 열라대왕을 만났다.
“제 일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요?”라고 여자가 물었다.
그러자 열라대왕은 “아직 올 때가 안됐으니라. 40년 2개월 8일이 남았다고 대답했다.
새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한 그녀는 병원에 남아서 성령을 통해 얼굴을 고치고 납량한 몸매를 만들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에 치어 즉사하고 말았다.
열라대왕 앞으로 다시 불려간 그녀는 따져 물었다.
“저는 여기 올 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열라대왕이 말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대를 알아보지 못했느니라~”

▲무서운 마누라
밤길을 가던 한 중년 남자가 강도를 만났다.
“난 강도다. 돈 내놔!”
남자는 무서웠지만 강도에게 말했다.
“뭐? 돈? 안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집 근처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겼다고 하면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중년 남자의 대답에 어이없어하던 강도는 그 남자의 먹살을 쥐고 한바탕 했다.
“아이! 자식아, 그럼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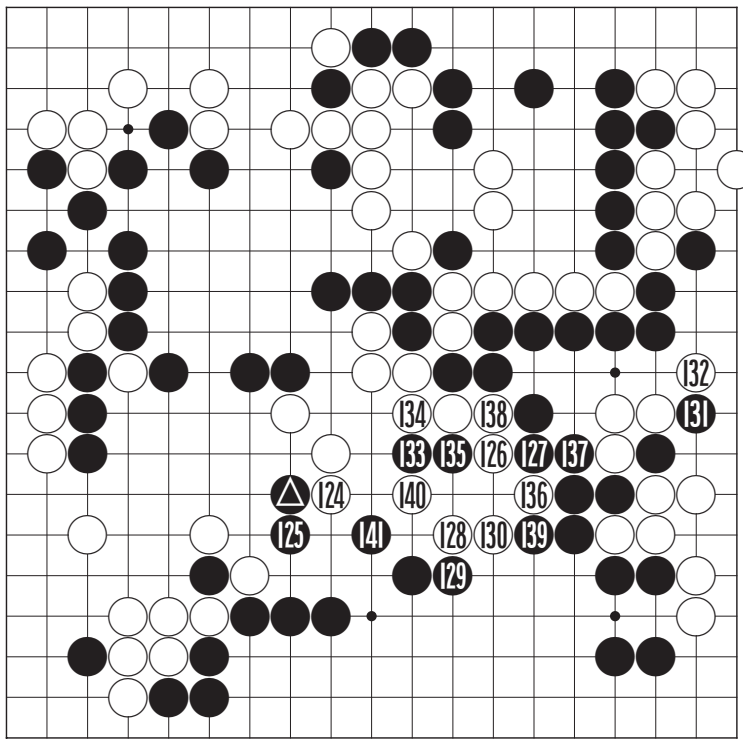
리빙 스펀스

화장품 재활용하기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개봉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기초 화장품과 관리를 잘못 해 꺼져버린 색조 화장품을 그냥 버리지 말고 간단한 방법으로 재활용해봅시다.
▲크림 : 가죽이나 핸드백을 닦는데 사용하면 묽은 때를 제거하고 윤기를 내는데 좋습니다. 영양크림은 머리 마사지할 때 사용해보세요. 머리카락에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 준 뒤 목과 수건으로 감싸고 30분 후 깨끗이 헹구면 윤기가 있는 머릿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렌징 크림 : 천연 성분인 살구씨 가루와 섞어 주면 바다 스크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이섀도 : 쓰다 남은 제품을 갈아서 파우더와 섞어 주면 다양한 색의 블러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해보세요.
▲트린케이크 : 가루로 만들어 파우더와 섞어 주세요.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한층 가볍게 발립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5일(음 12월 8일 甲寅)

子 36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48년생 2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60년생 숙연숙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72년생 가정이 안정된다. 84년생 신중하게 긴 안목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0, 28
丑 37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49년생 될 듯 될 듯 한 구상만 있고 남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61년생 중간간의 음모를 살피라. 73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다. 85년생 측남의 일에 오르내려도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22, 32
寅 38년생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당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2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74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되고 귀인이 도래한다. 행운의 숫자: 02, 32
卯 39년생 통찰에 마무리하여 모든 외형을 높이고 심리 면으로 집중하라. 51년생 황제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3년생 생애가 발전하고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75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23, 44
辰 40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조 상조. 52년생 모든 외형을 정리해주로 바리라. 64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76년생 독신자의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13, 40
巳 41년생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3년생 원한 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5년생 마지막 숙임을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77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19, 42
午 42년생 자신감에 小事 分爭이 발생할 수 있다. 54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가 나타날 수 있다. 66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78년생 시기상조이니 숨을 돌리고 주변을 보라. 행운의 숫자: 01, 31
未 43년생 낮은 곳에 온 것 같으니 불린다. 55년생 앞으로 불려사가 예상되니 흥사는 없다. 67년생 시기상조이니 숨통이 터진 기분. 79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復財하라. 행운의 숫자: 18, 43
申 44년생 큰 고통은 없다. 56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68년생 내용은 흥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뿜어 올릴 수 있다. 8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말고 신중하라. 행운의 숫자: 20, 16
酉 45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다. 57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실리를 점검하라. 69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된다. 81년생 산뜻한 새 시작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으나 후일을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24, 41
戌 46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기 좋은 수는 없다. 58년생 부친을 찾아 밟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70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온다. 82년생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4, 26
亥 47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59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71년생 시기상조이니 흥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하라. 83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를 연결하라. 행운의 숫자: 06, 3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필살의 일격 7보(124~141)
白 김근홍 4단 (전자공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흑 ▲가 백의 연결을 차단하는 강력하기 짝이 없는 급소 일격이었다. 이 수로 인해 중앙의 백 미생마가 왼쪽 백과 연결하는 수단은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자체에는 숨을 모색해야만 하는데 좌우의 흑이 워낙 견고해서 이마져 어려워 보인다.
백 24와 26은 그나마 유일한 선수행사. 이 두 수를 이용해 백을 살길을 열어야만 한다. 백 28 때 흑 29로는
<참고도>
참고도의 흑 1로 짓히고 3으로 잡으러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이렇게 받아주고 잡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백이 30으로 최대한도로 공도를 넓혀 눈모양이 생기는가 했으나 여기서 강지수군은 기합을 넣어 흑 33으로 치중한다. 이 수가 필살의 한 수로 이 수로 인해 자체에서 사는 수는 없어졌다.
김근홍군은 초읽기에 몰리는 와중에서도 진땀을 흘리며 안간힘을 다해 보지만 흑 41까지 거의 명맥이 끊긴 모습이다.
<요구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송홍석, 아마바둑 내가 최고
송홍석 아마 7단이 아마랭킹 1위에 등극했다.
대한바둑협회는 14일 “전국체전, 미추홀배, 서동배 우승을 차지한 송홍석이 총점 478.75점을 획득해 랭킹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배에서 프로기사들을 상대로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강창배 아마 7단은 3회 우승을 기록했지만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송홍석에게 가산점이 주어져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하성봉, 함영우, 김중해 등 연구생 출신의 젊은 기사들이 대거 10위권에 포진했으며 조민수, 심재욱이 각각 11위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Text includes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English, Korean, and Chinese. Each column contains a short dialogue or lesson with multiple choice or translation exercises.
Column 1: English -> Korean. Dialogue: 'I take it you didn't get a raise. 인상이 안되었나?'
Column 2: Korean -> Chinese. Dialogue: '一緒に(いっしょ)に海(うみ)に行(い)きませんか。 함께 바다에 가지 않을래요?'
Column 3: Chinese -> English. Dialogue: '你喜欢吃什么馅儿的饺子? 你喜欢吃什么馅儿的饺子?'
Each column includes a key and explanation for the exercises.